



Won W. Choi <wonwchoi7@gmail.com>

박태영 선교사 연락 온 내용입니다.

1 message

Rev.Dr.SungBongChoi <btjvnscb@gmail.com>

Sat, Aug 12, 2017 at 1:37 PM

To: "Choi 장로님 Won W.최원욱" <wonwchoi7@gmail.com>

첫번째 소식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님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8월 소식 알립니다.

저희는 ㅎ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독립을 원하는 시위로 하루걸러 하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 분위기가 여전히 불안하며 어수선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이로인해 이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현지인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ㅎ님께서 이땅을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1.내일 저희부부는 여선생님 팀들이 4억하는 나환자촌에 갑니다.

작년 바자회로 들어온 나머지 재정을 겨울에 필요한 전기난방용품을 나눠 주기위해 저도 함께 나환자촌에 갑니다.

원래는 겨울을 보내기위해서 이 지역 전통 카펫트를 살려고 했었지만, 예산이 맞지 않아서 이것보다 가격이 저렴한 겨울난방용품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 나환자촌에 사는 가정은 80가정이 됩니다. 좋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중보부탁드립니다.♡

2. 지금 현지인 지하교 ㅎ 지도자를 위해 예스제자 훈련 학교를 보낼려구 ㄱ도 중에 있습니다. 6개월간 훈련받는 교육입니다. 이곳에는 훈련받는 장소가 없기때문에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분이 더욱 성장하고 J의 제자로서 이 지역에 지도자로 올바로 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 손부탁드립니다.

3.저희부부는 지금 6개월 관광비자로 와있습니다. 요즘 인도비자 받는게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또한 이곳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사업비자로 오는 것이 아직은 때가 이르다 판단하여 계속 ㅎ님께 ㄱ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태권도 스포츠센터와 재봉(부띠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부부가 장기 비자를 받아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손모아주세요.

~간구할 제목~

1. 먼저는 이 곳에 저희 부부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ㅎ님께 감사합니다.
2. 하루 속히 이 땅에 정치적인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 올수 있도록 손모아주세요.
- 3.비자 문제가 잘 해결 되어 안정적인 4억을 할 수 있도록 손모아주세요.
4. 세상과 타협하지않고 위로 부터 오는 지혜와 ㅅ령의 기름부으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 5.날마다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재정이 채워지고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손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도)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쿠다하피즈!

복오도 ㅋㅅㅁㄹ에서 대니샤하나 드림.

두번째 소식입니다----

말씀이 힘이됩니다.

어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미 여선생님들과의 오랜 이웃이 되어 저는 더불어 환영을 받았답니다...
아직 c형 간염으로 이 공동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분은 당뇨와 기타 질병으로 눈이
멀어지는 분이 계시고.. 참 여러가지로 안타까웠습니다.

두달전에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하는 전날
여선생님들의 기도로 나오신 할머니가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현지 언어로 기도해서 그때 더
확신이 찬 믿음이 생겼대네요..또한 꿈에 ㅇ수님 만난 분도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나실때 이 곳 마을을 위해 손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v. SungBong Choi(D. Min)

Associate Pastor, Orange Canaan Presbyterian Church

[+1-562-371-7036](tel:+15623717036)

kakaotalk ID: lovehischurch

"너는 행복자라(신 33:29)"

-스스로 아름다워지려 하지 않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자요
행복 나눔이로서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